

두 증인 리빌드

The Two Witnesses Revealed

III 종 말



김 창 배 지음



두 증인 리벌드

The Two Witnesses Revealed

Part III

종 말

지은이 김 창 배

두 증인 리빌드 제3권 목차 (Contents)

제1장 사라진 옛 언약궤가 있는 곳 6

새 언약궤의 실체 28

사랑의 계명이 새겨진 십계명의 비밀 36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의미 51

제2장 제3성전을 건축하는 메이슨들 59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의 실상 60

성경에 나오는 프리메이슨의 기원 72

제3장 이 세대의 시기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 83

이 세대의 예언 - 예루살렘의 마지막 회복 시기 84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 98

AD 614년 -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시점 110

1290일의 예언의 기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시기 115

1335일의 예언과 공중재림의 시기 119

제4장 한 이레의 예언 - 7년 환난의 안식년 127

중동 전쟁의 예언 - 2026년 3월 128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의 정체 137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의 사람들 142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한 은 30냥의 댓가 149

제5장 2300주야와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 **157**

한 이레의 시기와 그와 연관된 2300주야 **158**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 - 2029년 2월 **165**

제6장 대희년 세대의 문명 - 제4차 산업혁명 **173**

마지막 세계 대공황의 예언 - 2022년 9월 **174**

중동 전쟁에 등장하는 킬러 로봇군인 **181**

짐승의 표 - 마지막 단일화폐 **188**

지구와 인류 종말의 예언 - 3029년 9월 **194**

제7장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201**

바로 왕의 꿈과 요셉의 해몽 **202**

대희년의 시기와 연관된 7년 풍년의 안식년 **208**

한 이레의 예언 -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 **216**

하늘에 속한 교회의 마지막 사명 **225**

영원한 복음의 실제 **236**



제 1 장
사라진 옛 언약궤가 있는 곳

사라진 옛 언약궤의 진실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3년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 그 이후로 성전 없이 지내오다가 약 1세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다시 제3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에 이른 현시점에서는 그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새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해야 할 사라진 언약궤를 찾는 것이 제3성전을 지으려는 자들에게 최대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최초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였다. 그때로부터 대략 480년 후인 BC 966년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에 착공하여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쳤던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광야 시절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놓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열왕기상 8장 1-11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

든 언약궤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준공된 지 373년만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의 제3차 침공 때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었으며, 40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존되었던 성전의 금, 은, 놋기명과 보물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부터 언약궤도 사라지고 말았다.

구약성경의 책들 가운데 출애굽기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열왕기 이후부터는 언약궤의 향방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후기에 나타난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사라진 언약궤의 향방에 대해 성전의 다른 귀중품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비밀 장소로 옮겨져서 화를 면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 지성소 바로 밑에 동굴을 만들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과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운명한 느보산의 동굴에 묻었다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언약궤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만약 바벨론의 느

브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래로 2,500여 년 동안 사라진 언약궤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를 알리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마땅하겠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두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분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언약궤를 이 땅의 제단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옛 언약궤가 사라진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광야 시절 성막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사라진 시점과 그 방향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판을 주시면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증거판을 넣어 보관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약궤의 크기와 모양과 장식품들을 식양대로 지시하셨고 이 지시대로 만든 것이 옛 언약궤이다.

출애굽기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막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진 언약궤는 모세가 인도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레위 족속들에 의해 운반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한 장소에 머무를 때에는 성막에 예비해 놓은 지성소에 안치해 놓았다.

성경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리고 성막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 없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식물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으며 40년 동안 이들의 의복 또한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

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를 그치시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공급해 주셨다.

여호수아 5:12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의 언약궤의 경로를 추적해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수 모를 겪는 많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 예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이방 족속인 블레셋의 손에 언약궤가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3만의 이스라엘 보병과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였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재앙이 임했다.

사무엘상 4:10-11,18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옆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사십 년이었더라

또한,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곁에 그 궤를 두었다가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지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명예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 나는 소 돌을 가져다 새 수레를 만들어 메우고 언약궤를 실어 벤세메스로 보내었다.

사무엘상 5: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그런데 벤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죄를 범하여 70인이 죽임을 당하자 이 엄청난 재앙 앞에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이 일로 인하여 벤세메스 사람들은 기랴트여아림에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무엘상 6: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 칠십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기랴트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함으로써 언약궤는 20년간 아비나답

의 집에 있게 되었다. 왜 언약궤가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언약궤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무엘상 7:1-2

기랴트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트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기 위해 이동할 때 소들이 끄는 새 수레로 운반하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는 범죄로 인해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6:6-7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라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사건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궁으로 건축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게 되었다.

사무엘하 6:9-10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왜 하나님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이 오벰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건축한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사건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사무엘하 6:12

혹이 다윗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왕의 신분인 다윗왕이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베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사무엘하 6:13-14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이미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오벧에돔의 집으로 이동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베옷을 벗겨 백성들 앞에 왕의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다가 베옷이 벗겨지는 광경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영화로우신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직언하므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였다.

사무엘하 6:16,20

여호와와 그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

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 건축을 다윗왕에게 허락하지 않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예비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뜻은 장차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세워서 다윗왕의 위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탄생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윗왕은 하늘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론의 반차를 좇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백성들과 계집종의 눈앞에서 다윗왕의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세웠는데 당시 사울이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하셨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를 행한 다윗의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에봇만 벗기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리라는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예루살렘에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장차 영원한 새 언약궤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증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 놓은 하늘성전이기에 때문에 사람들이 건축한 이 땅의 성전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성전에 안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왕에게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여 모세가 만든 사라질 옛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훗날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 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었다.

열왕기상 8:1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
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성막시대에 광야에 있던 옛 언약궤를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최
초의 성전으로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옛 언
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준공된 지 373년만인 BC 586년에 바벨
론의 느부갓네살왕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
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 언약
궤를 사라지게 하신 중심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세
상임금을 예표하는 두로 왕 후람과 맺은 평화 조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역대하 2:3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
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
리하소서

성막시대에 광야에서 세운 성막과 그 안에 넣어둘 하나님의 임
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식양대로 만들도록 직접 지시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의해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예비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신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성전시대에 최초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주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으나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세상임금을 예표하는 두로 왕 후람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두로 왕은 두로 사람과 혼인한 단 지파의 여자가 낳은 혼혈 자손들을 석공 기술자로 예루살렘에 보내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성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유대인처럼 행세하며 살았다. 이들이 해상 무역과 건축의 석공 기술 등으로 여러 나라에 왕궁들과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며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던 사단의 회들인 사실을 이미 이 책에서 증거하였다.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함락된 이후 BC 516년 그 성전 터 위에 제2성전으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님 당시 이방인 이두매(Idumea) 출신인 헤롯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서 완성한 헤롯 성전 안에는 여호

와의 언약궤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 언약궤가 사라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옛 언약궤가 성전에 보존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의 실체로 여기며 섬겼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 나무로 만든 옛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옛 언약궤가 상징하는 실체는 새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상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실체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만든 여호와와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예레미야 3:1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사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옛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차 하늘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사단의 회들이 만든 이 땅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교리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다. 유대인들처럼 보이거나 실상은 사단의 회들이며 거짓 목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섬기는 이 땅의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음녀 제단이 되고 말았다.

새 언약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제단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임하리라 하시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단의 회인 거짓 목자들이라 하셨다.

마태복음 23:13,1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따라서 이 땅의 제단에서 사단의 회들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이들을 새 언약궤에 담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증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시대에 옛 언약궤 안에 넣어 두신 내용물을 통해서 사단의 회들의 실체를 증거해 놓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옛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이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후에 첫 번째로 그 안에 두게 하신 십계명을 기

룩한 두 증거판이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다.

출애굽기 25: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돌지며

그리고 두 번째 내용물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두게 하신 향아리였다. 여기에서 향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질그릇으로 만든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데, 그 안에 담긴 만나 한 오멜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육의 양식을 담은 향아리를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약조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속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언약의 표라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6:33-34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물은 모세가 12지파의 각 족장들에게서 거둔 열두 개의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

는데, 그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민수기 17:6-8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개의 지팡이 가운데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에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 두게 되었다.

민수기 17: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언약궤 안에 간직하게 된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살구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부음을 받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

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증거하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막시대에 옛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해서 구속함을 받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광야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시대에 최초의 성전으로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안치해 놓은 옛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는 소멸되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남아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열왕기상 8:9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먹는 육의 양식은 영생하는 영의 양식이 아닌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옛 언약궤 안의 항아리에 있던 양식은 광야시대를 지나는 동안 묵은 곡식이 되어 항아리에서 썩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보관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다. 따라서 옛 언약궤 안의 항아리에 담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으로 다시 채울 때까지

지 만나 향아리는 광야에 묻히게 된 것이다.

또한,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 역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얻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은 장차 빨기세탁의 반차를 좇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속량해 주시기까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옛 언약계 안에서 소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판만이 유일하게 옛 언약계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으로서 영원한 첫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언약의 증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제정해서 옛 언약계 안에 두신 십계명을 복음으로 완성하기 위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두 계명을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목적은, 옛 언약궤 안에 있다가 없어진 만나 항아리에 영생하는 새 곡식을 채워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금 면류관을 받는 금 항아리로 살려서 새 언약궤에 담아 하늘성전의 지성소에 두시기 위함이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하늘보좌의 지성소에 있는 새 언약궤 안에는 금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영생하는 새 곡식을 담은 사람들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영광의 금 면류관을 받은 것을 증거하며, 또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처음 율법 아래서 소멸되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의 열매들을 나타내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 다시 새싹이 돋아난 것으로 증거하였다.

그리고 옛 언약궤 안에 넣어둔 십계명은 율법 아래 있는 모세가 죽은 돌로 만든 두 증거판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신 두 큰 계명으로 십계명을 완성한 산 돌의 비석들, 곧 언약의 비석들로 증거해 놓았다.

히브리서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싹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사라진 옛 언약궤에서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새 언약궤

가 하늘성전에 계신 것을 증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성경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 사라진 옛 언약궤의 향방과 그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증하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대회년의 세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성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의 상징물인 옛 언약궤를 찾아서 지성소에 모셔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찾는 것이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는 사라진 옛 언약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시대에 최초로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옛 언약궤 안의 묵은 곡식을 담은 육신들을 소멸시키신 것과 이 땅에서 세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들의 육신이 새 언약궤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금 향아리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는 늦은 비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아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